

ANIMAL

나는 사 년째 고양이와 함께 지내고 있다. 요즘은 수십 마리 물고기까지 새로운 식구가 되었다. 그들과 함께 하기 전에는 동물과 교감한다는 사람들의 말에 크게 동의하지 못했다. 지금은 아주 작은 생물체와 말을 나누는 법을 배웠고, 그들이 내쉬는 숨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서 내 눈앞에 있지 않은 수많은 생명체는 어떤 환경에서 살고 있는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게 되었다. 동물을 대하는 시선이나 태도가 조금은 나아졌다고는 하나 여전히 개선되지 못한 부분이 많아 보인다. 도시의 거리가 온전히 우리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일까. 동물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 대부분은 도시의 거리가 온전히 인간만을 위한 것이라고 여기고 있는 듯하다. 동물과 나눠야 하는 것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한 건 아닐까. 나는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며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다. 아이들이 읽는 책 대부분에는 동물이 등장한다. 여기에 나오는 동물은 아이 자신이기도 하고 친구이기도 하다. 아이가 자라 어른이 되어서도 그 생각을 할까. 과연 동화책에서처럼 돼지나 소가 아이의 친구일까. 한 동화책에서 이런 이야기가 등장한다. 인간이 위험에 처해 동물들에게 도움을 구하는 장면인데, 동물들은 인간을 도와주지 않으려고 한다. 소는 자신들을 잡아먹는 인간을 이기적이라고 말한다. 나는 그 장면을 아이에게 어떻게 전달해 줘야 할지 몰라 책을 덮어버렸다. 아이가 언젠가 소고기에 대해 질문한다면 나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언제까지 동물이 너의 친구라고 말해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매해 고기의 소비량은 최대치에 다다른다고 한다. 모두가 채식주의가일 필요는 없지만 조금이라도 고기의 생산이 줄어든다면 좋겠고, 길고양이에게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기 보다는 멀리서나마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주는 게 때로는 더 나을 수도 있다. 동물원이 꼭 존재해야 한다면 그들이 생활하기에 더 나은 환경은 무엇인지 찾아야할 것이다. 동물과 관련된 사회적 문제는 아주 민감하고, 대답이 항상 끊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번 호에서 동물에 대해 무겁게만 다루지는 않기로 했지만, 이런 논쟁은 피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비단 먹는 행위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인간은 좀 더 동물을 해치지 않는 일에 대해 고민했으면 좋겠다. 요즘 같은 과잉시대에 편리를 추구하느라 놓치는 것들이 무엇인지 돌아봐야 할 것 같다.

편집장 김이경





MWITE

A new generation



Lackadaisic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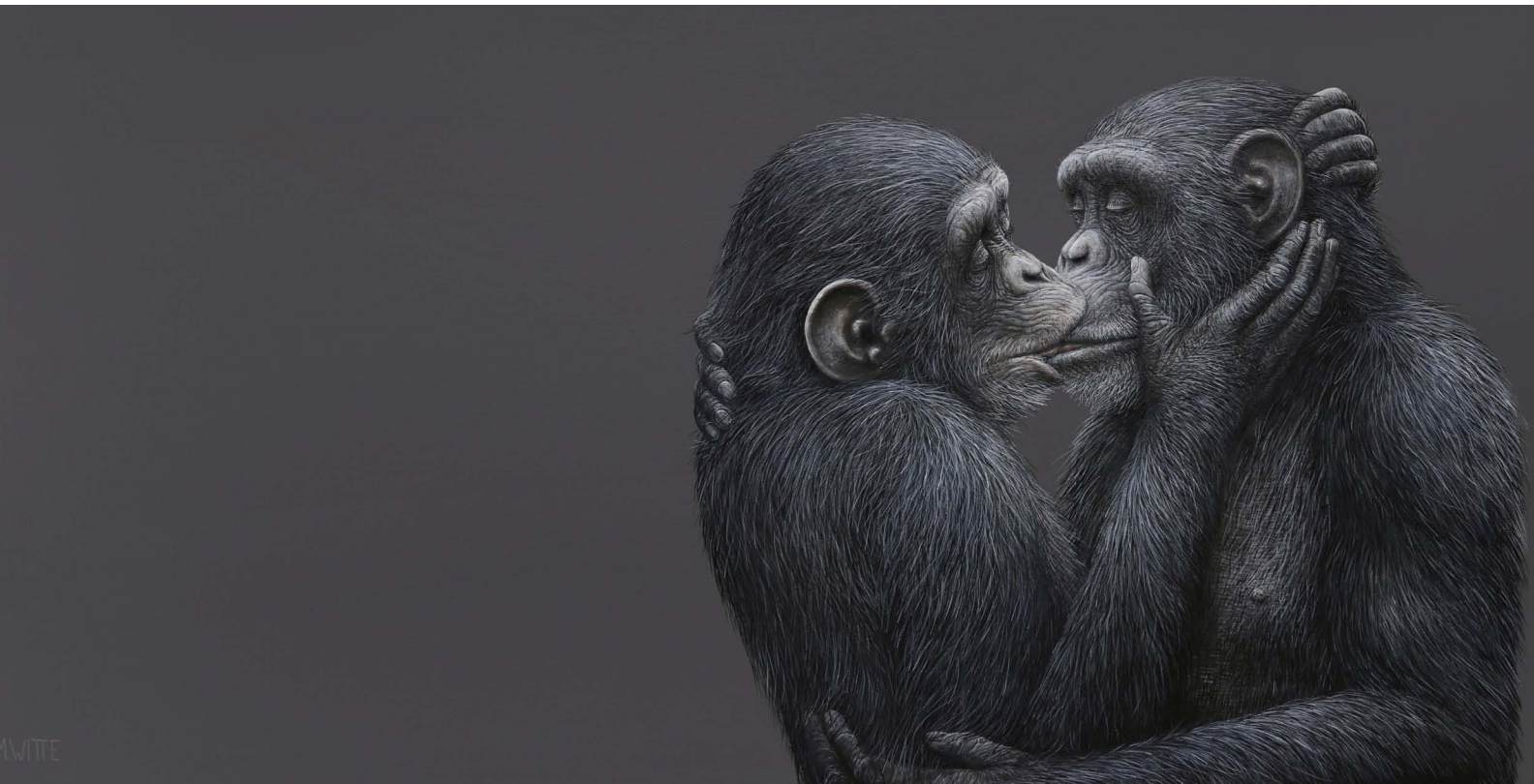
Together alone



Symbiosis



Freedom of movement



Passion



Migration

BETWEEN MAN AND ANIMAL

극사실주의 아티스트, 마르셀 위트로

네덜란드 출신의 마르셀 위트로Marcel Witte는 극사실주의 기법으로 동물을 그린다. 살아있는 동물을 캔버스에 가둬놓기라도 한 걸까. 아니 상식적으로 종이에 동물을 박제하는 것이 가능한 건가.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며 한참 동안 그림을 봤다. 그의 작품 속 동물들은 보는 이에게 말을 건다. 북극곰은 집을 잃을까 겁이 난다고, 힘이 빠진 토기는 태업을 감아달라 말한다. 그것은 그들의 이야기일 수도, 사람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마르셀 위트로는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걸까.

에디터 정혜미 사진 마르셀 위트로





Lackadaisical

‘동물’을 주제로 작업하게 된 동기가 있나요?

스스로를 표현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은 마음이 이끄는 ‘무언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물을 정말 좋아하기 때문에, 동물을 매개체로 그림을 그리는 것이 ‘나’를 이야기하는 완벽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죠.

동물과 인간의 공존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나요?

인간과 동물의 공생에 대해 항상 생각했어요. 확실한 것은 해가 갈수록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될 것이란 거죠. 인간과 동물의 차이점과 유사점은 어떤 걸까요? 그들은 분노, 사랑, 두려움, 비통함 등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또 의사소통은 어떻게 할까요? 동물과 인간은 분명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그것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죠.

그림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나요?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한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함께 사는 인간들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인 메시지는 같죠. 서로를 존중하자. 우리는 아름다운 행성에 살고 있고, 다양한 생명체와 함께 살고 있어요. 각자의 삶을 살면서 주변 환경을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취미로 그림을 그리다 화가가 되셨다고요. 원래는 무슨 일을 했나요?

전 항상 그림을 그려왔어요. 신기한 것은 어렸을 때 그린 그림에서 집도,

물건도, 차도 볼 수 없어요. 오직 동물이죠. 그렇다고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 될 생각은 없었어요. 유치원 때부터 오로지 삼림 감독관이 되고 싶었죠. 집 주변에 항상 사슴이 뛰놀고, 지프를 타고 다니는 제 모습을 꿈꿔왔어요. 그래서 ‘Dutch Nature’란 기관에서 일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가족과 친구들을 위해서 계속 그림을 그렸죠. 그런데 제가 일하던 기관에서 저에게 일러스트 몇 개를 그려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 후로 점차 더 많은 곳에서 그림을 요청했고, 결국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완성 작품을 보면 정말 사진 같아요. 이러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요?

실물과 똑같은 느낌을 주었다는 얘기를 들으니 영광이에요. 작품을 완성하기까지는 꽤 많은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죠. 저는 그림을 그리기 전에 먼저 그릴 동물에 대해서 많은 조사를 해요. 그들의 표현, 움직임, 몸짓 등에 익숙해지려고 노력하죠. 심지어 털의 촉감에 대해서도요. 전 동물을 그릴 때 항상 눈부터 그려요. 이상하게 들릴지도 모르겠지만, 이렇게 하면 동물이 나를 보고 있는 느낌이 들고, 동물과 나 사이에서 어떤 교감을 느껴요. 그러면서 동물의 감정을 가능한 한 많이 그릴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일 어려운 부분은 털이죠. 그리고 또 그리고. 계속해서 덧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실제 동물 같은 형태가 되죠. ‘극사실주의’를 표현하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은 사진이에요. 어떤 사진에서는 코를, 다른 사

진에서는 눈을, 그리고 또 다른 사진에서는 귀를 잘라와서 저만의 완벽한 동물을 만들어요.

현재 키우고 있는 동물이 있나요?

제가 동물애호가라는 것은 분명하죠. 불행히도 고양이나 개, 소, 염소, 말 등 동물과 함께 사는 이상적인 환경에서 자라진 못했지만, 작은 애완동물은 많이 키웠어요. 햄스터, 도마뱀, 앵무새와 같은.... 화가로서 첫 번째 그림 그릴 때에는 진짜 금붕어를 키웠어요. 그녀에게 남자친구도 만들어 주었죠(웃음). 저는 그 금붕어 커플이 좋은 시간을 보냈을 거라고 확신해요. 왜냐하면 많은 알을 낳았기 때문이죠. 금붕어 새끼들은 전부 친구들에게 입양 보냈어요.

앞으로도 동물을 주제로 작업할 계획인가요?

당연하죠. 세상은 영감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현대사회 혹은 과거의 사회 문제는 저에게 중요한 소스죠. 제가 어떻게 그 문제들을 동물을 통해서 표현할 수 있을까 항상 고민해요. 예를 들어, 날개가 묶인 채 작은 막대 끝에 앉아있는 앵무새의 안타까운 모습을 그린다면, 앵무새는 스스로의 불가능에 사로잡혀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죠. 또 따뜻한 새집을 찾은 유기견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죠. 하지만 행복한 그의 모습 뒤에는 과거에 그가 고통받았던 모습을 표현할 수도 있죠.

작가가 말하는 작품 이야기

Multicultural

40개의 작은 새집들이 다닥다닥 모여있어요. 현대사회의 도시를 묘사하는 작품이죠. 이 작품은 수많은 도시의 빌딩화된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바친 그림이에요. 다채로운 색깔의 새는 다양한 나라와 인종을 표현한 거예요. 그들이 어떤 공간에서 조화를 이루며 살기를 바라는 이상화죠.

Migration

어미 북극곰과 두 마리의 새끼를 보여줘요. 그들은 공기로 차있는 매트리스 위에 불안한 듯 서서 새로운 서식지를 찾고 있죠. 더 이상 살아갈 곳이 없는 북극곰의 불안감을 표현했어요. 이 이야기를 인간에 대입할 수도 있어요. 만약 사람을 그렸다면, 너무 적나라하게 표현되었을 것 같아요. 그림을 통해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동일하지만, 동물을 매개체로 사용함으로써 덜 공격적으로 보이는 것 같아요.

Lackadaisical

작은 토끼가 있어요. 사람은 에너지가 떨어졌을 때, 분명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요. 이 태업을 감아 당신에게 힘을 주는 사람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의미가 숨어있는 그림이죠.